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배포일시	2018. 9. 1.(토)	담당부서	신남방통상과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
담당과장	송요한 과장 (044-203-5710) 김영만 과장 (02-734-1864)	담 당 자	김세민 사무관(044-203-5712) 이윤진 사무관(02-734-1870)

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RCEP 장관회의 참석 통해 '한-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' 구체화

◎ 아세안 제조업 육성 지원, 한-아세안 헬스케어 산업협력 추진
◎ 한-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진전
◎ 싱가포르 투자청 및 국부펀드에 투자유치 활동 전개

□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18. 8. 30.(목) ~ 9. 1.(토)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**아세안 경제장관회의**(한-아세안, 아세안+3, EAS)와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장관회의**에 참석하여,

*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,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: 아세안 10개국, 한·중·일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Mega FTA 협상 (총 16개국)

* 동아시아정상회의(EAS, East Asia Summit) : '05년 아세안, 한·중·일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, 미, 러 정상들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, '13년 이후 경제장관회의 개최 (총 18개국)

○ 아세안과의 **경제협력을 공고히**('한-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*'의 일환)하고, **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에서 진전**을 위해 관련 협상국들과 협의했다.

* '17.11월 우리 정상 인도네시아 방문 시 사람(People), 상생번영(Prosperity), 평화(Peace)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-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전략을 발표

1.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

(1) 상생협력 파트너, 아세안의 제조업 육성 지원

□ 한국은 아세안 국가와 공동으로 아세안의 제조업 기반 구축, '글로벌 가치사슬(GVC)' 연계를 지원해 아세안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.

○ 특히, 아세안 제조업 생산현장에 우리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**'개발도상국애로기술지도사업(TASK)*'**를 **태국, 인도네시아**에서 성공적으로 완료('16~'17년, 금형)했고, 신규 참여국 **미얀마**('17~'19년, 농기계), **필리핀, 캄보디아**('18~'20년, 식품가공) 이외에도 여타 아세안 국가로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.

*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(TASK) : 개발도상국 애로기술 지도사업

○ 또한 내년 착수 예정인 **베트남 개발도상국애로기술지도사업(TASK) 센터***(개도국 애로기술지원 센터)를 비롯해, 아세안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**아세안 각지에 개발도상국애로기술지도사업(TASK) 센터를 추가 설립**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.

* '18.3월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한국 산업기술진흥원-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베트남 소재부품 TASK 센터 조성에 합의

(2) 한-아세안헬스케어 산업 협력 추진

□ 한국과 아세안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6억 5천명 인구가 모인 공동체인 **아세안의 풍부한 데이터**와 **한국의 스마트 의료기술**이 합쳐진다면, 데이터 연계를 통한 각종 스마트 의료서비스에서 미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, **헬스케어 산업**에서 미래 협력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.

○ 이에 한-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**한-아세안 기업인 협의회***(Business Council) **산하에 헬스케어 분과위원회**(우리측 사무국 : 대한상공회의소)를 설치할 것에 합의했다.

* 한-아세안 양측 경제계간 대화협의체로 '13.10월 한-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설립

- 한국과 아세안의 헬스케어 분야 기업인, 협회, 전문가로 구성될 한-아세안 헬스케어 분과위는 향후 헬스케어 협력사업을 발굴, 이행하고 사업성과를 경제장관회의에 정기 보고할 예정이다.

(3)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 추가자유화 가속화

□ 한국과 아세안은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 ('07년 발효) 이행과 관련해 양측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**한-아세안** 자유무역협정 **제3차 상품협정 개정의정서*** **발효** 및 **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 추가자유화 협상** 진행상황을 점검했다.

* (주요 내용) 통관 절차 개선 및 원산지 기준 확대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

○ 또한 양측은 **'20년까지 한-아세안 교역액 2,000억 달러 달성**을 위해 관심사를 지속 협의하는 등 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 추가자유화 협상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.

2. 아세안+3 및 EAS 경제장관회의

□ 아세안+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(10개국) 및 한·중·일 13개국은 **공급사슬연계**(Supply Chain Connectivity, SCC) **공동연구*** **착수에 합의**했다.

* 한·중·일 및 아세안 연구기관(KIEP, CAITEC, JETRO, ERIA)이 아세안+3 정상회의('18.11월, 싱가포르) 계기, 동 연구에 착수할 예정

- (연구 내용) 설문조사, 기업현장방문, 전문가 상담회 등을 통한 역내 국가들의 공급사슬 현황 연구, 기업애로사항 분석 및 정책제언

○ 동 연구는 **역내 국가 간 공급사슬연계 구축** 및 경제개발·**교역확대에 기여**할 수 있을 것이며, 아세안 및 한·중·일 모두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**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, **향후 출범할 역내 거대 경제공동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분석**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및 한·중·일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, 미국, 러시아 16개국은 세계 경제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.

○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,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, 특히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경제화를 생산성 향상 및 영세·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계기 제공 등 긍정적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.

3. 제6차 RCEP 장관회의

□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** 장관회의에서 아세안(10개국)과 한·중·일·호·뉴 16개국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중요성을 강조**하고, **연내 실질적 타결**에 대한 **의지를 재확인**하였다.

□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** 장관들은 **지난 제23차 공식협상**('18.7월, 방콕) 시 **통관**챕터(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)와 **정부조달**챕터(Government Procurement)의 타결로 **총 4개 챕터를 타결***하였음을 확인하고, 동 회의 시 합의한 **'연내 성과목표 패키지**'를 추인**했다.

* 중소기업 챕터, 협력 챕터('16년 타결), 통관챕터, 정부조달 챕터 등 총 4개

** Packge of Year-End Deliverables
- 상품·서비스·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·지재권·TBT 등 협정 전반에 걸쳐 연내달성 성과목표 설정

○ 장관들은 이러한 성과가 포괄적이고, **상호 호혜적인 협상 타결을 가속화**할 수 있는 **긍정적 국면전환(모멘텀)**이 되어야한다고 역설하고, **연내 실질적 타결**을 위해 **최대한의 노력을 경주**하자는데 합의했다.

4. 양자회담 및 투자유치 활동

□ 한편, 김 본부장은 동 방문 계기에 **캐나다**(Jim Carr), **베트남**(Tran Tuan Anh), **필리핀**(Ramon Lopez) 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·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□ 또한, 김 본부장은 싱가포르 투자청(GIC) 및 테마섹 투자 책임자와 만나 바이오, 신재생, 반도체 등 **우리의 투자 유망산업을 제시**하고, **관련 투자를 요청**하는 한편, 오는 11월(11.6~8, 서울) 개최되는 한국투자주간(IKW: Investment Korea Week)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**투자유치 활동을 전개**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과 김세민 사무관(☎ 044-203-5712),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이윤진 사무관(☎ 02-734-18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